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19

JCCT 2023-9-3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Stress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Freshma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노기옥*, 박민정**

Gie Ok Noh*, MJ Park**

요약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시기에 입학한 간호대학 신입생으로 1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PC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과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대학생활 태도가 소극적인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5.92$, $p=.004$),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22$, $p=.029$). 또한 COVID-19로 인한 활동제한으로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감염예방행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3.51$, $p=.018$). COVID-19와 같은 팬데믹 환경에서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감염예방행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상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팬데믹, 간호대학 신입생, 스트레스, 감염예방행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level of stress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freshma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119 nursing college freshmen who took remote classes because face-to-face classes were not possibl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WIN/PC 26.0 statistics progra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ensitivity to stress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the attitude towards college life was passive ($F=5.92$, $p=.004$), and when people perceived themselves as healthy, their stress was significantly lower ($t=-2.22$, $p=.029$). In addition,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were very uncomfortable due to activity restrictions due to COVID-19 ha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than those who responded that they did not feel any discomfort ($F=3.51$, $p=.018$). In a pandemic environment such as COVID-19, efforts to promote a positive attitude and awareness of health conditions are needed to reduce the stress of college freshmen and increase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Key words : Pandemic, Nursing college freshman, Stress,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정희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희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7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15일

Received: July 7, 2023 / Revised: August 10, 2023
Accepted: August 15, 2023
**Corresponding Author: nkorn91@konyang.ac.k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연말에 발생한 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COVID-19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일상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1]. 국내에서도 COVID-19 상황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2-4].

특히 힘든 학업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COVID-19로 인한 변화와 활동 통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취약한 대상자 중 하나이다[3].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은 COVID-19 상황 속에서 불안과 우울 등의 감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감염예방행위 실천에 대한 행위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5].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COVID-19 팬데믹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감염예방행위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예방행위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요인을 다양하게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최근 진행된 선행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염예방행위의 수행은 불안, 위험 인식, 정보이해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6].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소와 관련성이 높은 요소로서[5] 감염예방행위와의 관련성에 관해 탐구되어야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에 국민 건강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게 될 간호대학생은 전문적인 건강관리자로서 공공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7], 감염예방행위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되어야 한다. 감염예방행위는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맞는 실천적 행위로서 감염예방행위가 측정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의 COVID-19 관련 감염예방행위에 대해 시행된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으로 자기효능감[8], 감염에 대한 지식과 태도[9]의 영향성을 제시하였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간호대학 신입생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양한 도구로 측정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COVID-19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2021년 개발된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COVID-19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CSSK)[10]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3, 11, 12]. 그러나 코로나 스트레스 척도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대학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스트레스에 연관되는 내재적 측면의 하위 요인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신입생의 스트레스 측정에 적합하게 개발된 도구[13]로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 속 신입생의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하위 특성의 측면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취약성을 갖는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세부적인 요인에 따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 적합한 감염예방행위의 실천 수준을 확인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감염예방행위를 증진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서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를 확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의 수준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수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 팬데믹으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된 시기에 입학한 간호대학 신입생이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적절한 표본 수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해 Yang et al.[14]이 시행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산출하였다. 목표 대상자 수는 125명으로 125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19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 도구

1)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는 Lee et al. [15]이 해외 자료를 번안하여 제시하고, Lee et al.[13]이 대학 신입생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의 하위 영역 중 좌절감(10문항), 박탈감(10문항), 자아 존중감(9문항), 불안 반응성(10문항)에 해당하는 39문항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을 확인하였다. 전혀(1점)부터 항상(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각 하위 영역에서 합산 점수가 25점 이상은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 중등 이상을 의미한다. 도구에는 좌절감 2문항, 자아 존중감 5문항이 부정 문항으로 해당 문항의 점수는 역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선행연구[13]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좌절감 .67, 박탈감 .54, 자아 존중감 .50 불안 반응성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좌절감과 박탈감 .60, 자아 존중감 .64, 불안 반응성 .77이었다.

2) 감염예방행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감염예방행위는 2021년 3월 발간된 COVID-19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북[16]에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은 마스크 착용, 기침 관리, 손소독 방법 등(7문항), 사회적 거리두기(10문항), COVID-19 증상 발생 시 관리(4문항) 전체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설문지 내용은 감염내과 전문의 1인, 감염전문의간호사 2인,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 받았다.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염예방행위를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 대한 고려와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 보호를 위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참여공고문을 공지하고,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 자로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공고문은 D-광역시에 소재한 1개 간호대학 1학년 학생들(188명)이 볼 수 있도록 공지되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었다. 대상자가

연구자 소속 대학의 학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는 학과 성적과 무관함을 공고문에 포함하였으며, 본 연구자는 해당 학기에 1학년 교과목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 익명성 보장 및 비밀 보장에 대하여 연구설명문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의 진행 중에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구글 설문지 형태로 작성에는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PC 2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한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 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대학생활 만족, 전공 만족, 대학생활 태도, 지각된 건강상태, 재난교육 경험, 친구 수, 활동제한으로 인한 불편감, COVID-19로 인한 가족의 영향에 대한 항목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 분포에 관한 결과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차이에 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102명(85.7%)으로 많았으며, 대학생활 만족은 101명(84.9%)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은 보통 이상이 110명(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학생활에 보통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5명(79.9%)이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80명(67.2%)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재난교육은 105명(88.2%)에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소 연락을 취하는 친구 수는 3~5명이라는 응답이 56명(47.1%)으로 가장 많았다. COVID-19로 인한 활동제한에 대해 불편함이 없다는 응

답은 3명(2.5%)으로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다. COVID-19로 인해 가족에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4명(70.6%)으로 과반수 이상이였다.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태도와 지각된 건강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생활 태도가 소극적인 경우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F=5.92, p=.004),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22, p=.029).

감염예방행위는 일반적 특성 중 활동제한으로 인한 불편감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COVID-19로 인한 활동제

한으로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감염예방행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3.51, p=.018).

2. 간호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수준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의 수준은 2와 같다. 스트레스 전체 항목의 합은 평균 88.39±11.01점(156점 만점), 감염예방행위는 71.87±8.23점(84점 만점)이었다.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평균이 25점 미만으

표 1. COVID-19 상황에서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Table 1. Stress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9)

Characteristics	Category	n (%)	스트레스		감염예방행위	
			M±SD	t or F(p)	M±SD	t or F(p)
성별	남자	17(14.3)	84.94±11.55	-1.40(.164)	69.35±8.78	-1.37(.175)
	여자	102(85.7)	88.96±10.87		72.28±8.10	
대학생활 만족	불만족	18(15.1)	87.56±13.11	0.86(.426)	71.72±5.68	0.12(.890)
	보통	69(58.0)	89.48±8.95		71.62±7.45	
	만족	32(26.9)	86.50±13.58		72.47±10.85	
전공 만족	불만족	9(7.6)	91.33±13.82	0.63(.536)	70.22±5.33	0.24(.784)
	보통	61(51.3)	88.85±9.35		72.77±8.34	
	만족	49(41.2)	87.27±12.39		72.29±8.60	
대학생활 태도	소극적 ^a	24(20.2)	94.83±13.28	5.92(.004) a>b,c	71.88±7.74	1.84(.164)
	보통 ^b	71(59.7)	87.27±10.09		70.93±7.89	
	적극적 ^c	24(20.2)	85.25±8.81		74.63±9.35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함	80(67.2)	86.85±9.94	-2.22(.029)	71.35±9.10	-0.98(.330)
	보통	39(32.8)	91.54±11.47		72.92±6.02	
재난교육 경험	유	105(88.2)	88.30±10.95	-0.22(.825)	72.37±8.01	1.86(.066)
	무	14(11.8)	89.00±11.79		68.07±9.16	
친구 수	없다	3(2.5)	95.33±12.86	0.75(.526)	72.33±14.57	0.54(.658)
	1-2명	36(30.3)	89.75±12.07		71.47±7.27	
	3-5명	56(47.1)	87.57±10.10		71.29±9.32	
	6명 이상	24(20.2)	87.38±11.37		73.75±5.98	
활동제한 불편감	매우 불편 ^a	55(46.2)	89.76±11.43	0.79(.500)	73.35±7.10	3.51(.018) a>d
	조금 불편 ^b	45(37.8)	87.09±8.95		72.67±8.26	
	보통 ^c	16(13.4)	88.44±14.44		69.69±7.94	
	불편함 없음 ^d	3(2.5)	82.33±12.10		59.33±17.93	
가족 내 COVID-19의 영향	큰 영향	20(16.8)	91.70±11.15	1.34(.267)	72.75±8.47	0.83(.439)
	조금 영향	64(53.8)	88.28±11.14		72.41±7.63	
	영향 없음	35(29.4)	86.69±10.55		70.37±9.14	

로 연구참여 대상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군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좌절감에서 22.43±3.57점(36점 만점)으로 만점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영역은 박탈감(20.39±4.09점)으로 확인되었다.

감염예방행위의 항목에 따른 이행을 항목별 만점 기준으로 확인하였을 때, 마스크 착용, 기침 관리, 손소독 등에서 28점 만점 기준에 24.33±2.96점으로 가장 잘 이행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활동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에 33.55±5.2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 수준을 보였다.

표 2.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수준
 Table 2. Stress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N=119)

Variable	M±SD	Range
스트레스 전체	88.39±11.01	39-156
좌절감	23.90±4.00	10-40
박탈감	20.39±4.09	10-40
자아 존중감	22.43±3.57	9-36
불안 반응성	21.66±4.48	10-40
감염예방행위 전체	71.87±8.23	21-84
마스크, 기침 관리, 손소독 등	24.33±2.96	7-28
사회적 거리두기	33.55±5.24	10-40
COVID-19 증상 발생 시 관리	13.98±1.89	4-16

3. 대상자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간의 관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간에는 좌절감과 박탈감($r=.31, p<.001$), 자아존중감($r=.37, p<.001$), 불안 반응성($r=.22, p=.018$)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박탈감과 불안 반응성($r=.45, p<.001$), 자아 존중감과 불안반응성($r=.20, p=.027$)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감염예방행위와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표 3. COVID-19 상황에서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의 관계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infection prevention behavior

(N=119)

Variable	스트레스 - 좌절감	스트레스 - 박탈감	스트레스 - 자아 존중감	스트레스 - 불안 반응성
	r (p)	r (p)		
스트레스 - 박탈감	.31 (.001)	1		
스트레스 - 자아 존중감	.37 (<.001)	.14 (.139)	1	
스트레스 - 불안 반응성	.22 (.018)	.45 (<.001)	.20 (.027)	1
감염예방행위	-.03 (.729)	.13 (.162)	-.04 (.662)	.01 (.880)

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장시간 진행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에 입학하여 원격 교육으로 신입생 시기를 지내고 있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의 수준과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한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대학생활 태도가 적극적인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im & Ryu [17]의 연구에서 비대면 임상실습을 진행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일 때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 민감도가 낮은 것과 유사한 맥락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지할 때 스트레스가 낮게 확인된 것은 대학생의 낙관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인지가 낮다고 제시한 선행연구[18]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비대면 학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하고 생활에 임하는 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활동제한으로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감염예방행위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6]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염예방행위는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수행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걱정하는 만큼 감염을 예방에는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생각하면 감염 예방행위를 철저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활동제한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하위 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COVID-19 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Jeon과 Han의 연구[19]에서는 COVID-19 위험인식, 회복탄력성, 스트레스와 미디어 의존이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스트레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은 하위 영역 모두에서 낮은 수준이었고, 감염예방행위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4점을 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적인 시간이 많은 대학생의 상황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가 감염예방행위와 직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의 일부 참여자에게서 수집된 결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입학하게 되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대학생활을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비대면의 방식이지만 적극적인 태도로 대학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여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동제한이 불편함으로 인지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감염예방행위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를 통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요인, 그리고 감염예방행위 수행의 상태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대학생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대상자와 관련 변인에 대해 수행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관련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 대상자를 여러 지역의 대학으로 확대한 반복 연구의 수행을 제안한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의 스트레스와 감염예방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을 포함한 추가 연구의 수행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L. S. Pfeifer, K. Heyers, S. Ocklenburg, O. T. Wolf. (2021). Stress researc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beyond.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131, 581-596. DOI: <https://doi.org/10.1016/j.neubiorev.2021.09.045>
- [2] K. W. Lee. (2022).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effects of corona-stress on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The Association of Korea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9(4), 29-44. DOI: <http://dx.doi.org/10.20496/cpew.2022.9.4.29>
- [3] Y. R. Lee, J. H. Jo.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corona-19 stress on college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12), 1-22.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2.12.29.12.1>
- [4] Y. J. Kim, E. S. Kim. (2022). The effect of COVID-19 stress on work-leisure conflict and work-leisure facilitation in the COVID-19 situation.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46(1), 77-89. DOI: <https://doi.org/10.26446/kjlrp.2022.3.46.1.77>
- [5] J. H. Kang, A. R. Bak, S. T. Han. (2020).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4(5), 289-297.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20.7.14.5.289>
- [6] J. H. Park, J. H. Kim, H. J. Lee, P. Kang. (2021). The relationship of anxiety, risk perception, literacy,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8(1), 48-59. DOI: <http://dx.doi.org/10.12925/jkocs.2021.38.1.48>
- [7] S. J. Zahner, J. B. Henriques. (2013). Interest in public health careers among undergraduate student nurses. *Journal of Public Health Management and Practice*, 19(1), 62-69.
- [8] S. Son, J. Kim. (2022). The impact of knowledge,

- risk perception, fear, self-efficacy on COVID-19 preventive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24(4), 253–261. DOI: <https://doi.org/10.7586/jkbns.2022.24.4.253>
- [9] H. Yi, H. N. Jeong, J. S. Kim. (2021).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compliance with preventive behaviors of COVID-19 among college students. *Nursing & Health Issues*, 26(1), 39 - 52. DOI: <https://doi.org/10.33527/nhi2021.26.1.39>
- [10] E. Kim, S. Park, Y. Lee, H. Park. (202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VID-19 stress scale for Korean peop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1), 141–163. DOI: <https://doi.org/10.15703/kjc.22.1.202102.141>
- [11] H. K. Goo. (2021).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with stress and smart devices over dependence in the COVID-19 pandemic : the moderating effect of mindfuln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4), 591–597.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591>
- [12] A. Choi. (2021). The effect of COVID-19 stress on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12), 89–10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21.12.28.12.89>
- [13] Y. K. Yang, K. S. Han, M. H. Bae, S. H. Yang. (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1), 23–33.
- [14] M. G. Lee, S. H. Kim, M. J. Keum. (1985). *Controlling stress and tension : a holistic approach*. Jung-ang-Jeog-seong-Chulpansa:Seoul. 3–288.
- [15] Y. H. Lee, S. G. Rhie, H. R. Won. (2006). The nutritional status by stress on freshmen of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17(4), 81–95.
- [16]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2021). *COVID-19 infec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guidebook*. 3–111.
- [17] H. S. Lim, J. L. Ryu. (2021). The effect of str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OVID-19 situ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1), 521–531.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11.521>
- [18] A. Choi, H. Kim. (2022).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VID-19 stress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1), 767–781.
- DOI: <https://doi.org/10.22143/HSS21.13.1.54>
- [19] S. W. Jeon, S. J. Han. (2021). Factors influencing hospital nurses' COVID-19 prevention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2), 583–594.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1.12.12.583>